

# ‘시민배심원제 미도입’ 통합특별시장 후보간 입장차

김영록 “당 방침 따를 것...응답률 고민”  
 강기정·신정훈 “시민 참여 약화...유감”  
 민형배 “당내 갈등 최소화 합리적 선택”  
 이개호 “지역 여건·주민 뜻 무시한 폭거”  
 정준호 “후보 비전·역량 검증될지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방식을 확정하는 가운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를 놓고 후보들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시민공천배심원제 대신 ‘당원 50%+국민참여(여론조사) 50%’로 경선 방식을 결정하자, 일부 후보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후보들은 시민참여가 약화됐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당에서 방침을 정한 만큼 그대로 따를 것이고 특별한 의견은 없다”며 “다만 본경선에서 여론조사를 50% 반영하는 만큼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투표권 없는 배심원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원·국민주권, 1인 1표제 정신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순회투표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조직과 돈이 동원되는 것을 막고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과 광주의 인구와 당원 수 차이는 염려한 현실이다. 균등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선은 성공적인 행정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등가성’ 같은 기술적 잣대를 대어 배심원제를 무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지역민의 ‘검증할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최고위가 시민배심원제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공천 혁신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춘 선택으로 시민 참여 공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선 시스템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가 스스로 정당성을 버리고 권리당원 50%, 시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을 결정하는 것은 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뿐 아니라 지역 여건과 시·도민의 뜻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배심원에게 의결권이 없고 현장 투표도 없는 방식이라면 전문가 평가가 실제 경선 결과에 반영되기 어렵다”며 “후보자의 비전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강기정·신정훈·이개호·정준호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선거구 통합에 따른 공정한 경선 관리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4명의 후보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혁신적인 경선을 위해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 재검토 및 관철 ▲유권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경선 일정 확보 ▲통합 선거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경선 방식 도입 등을 요구했다.

/김진수·변은진기자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1인 1표제 실현!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신정훈 “kWh당 90원 파격 전력 공급”

###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비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과 광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남광주형 에너지 4대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kWh당 90원’의 초저가 전력 공급과 1조원 규모의 지역 에너지공사 설립이다.

신 위원장이 제시한 4대 핵심 전략은 ▲전남 광주 에너지공사 설립 및 1조원 투자 ▲RE100 전용 산업단지 4곳 조성 ▲햇빛소득마을 1천 개 조성 ▲남부권 수소 산업벨트 및 기술연구구 구축이다.

우선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 산업 수요를 통합 설계·관리하는 ‘전남광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한다. 단순 전력 판매를 넘어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이 에너지 산업의 이익을 직접 공유하는 공공 플랫폼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위한 파격적인 전력 공급 조건도 내걸었다. 에너지 공사와 기업 간 직접 거래 방식을 도입해 ‘kWh당 90원’ 수준의 저가 전력을 공급하고 약 100만평 규모의 RE100 전용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단 한 곳당 1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도 포함됐다. 1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활용해 영농형 태양광과 결합한 ‘햇빛소득마을’ 1천개를 조성한다. 마을 단위 3MW 규모 발전소를 구축하고 연 1.75%의 저리 융자를 지원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소외감을 해소하고 월평균 약 15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주민 참여형 모델을 도입한다.

또한 영광(원전), 신안·해남(재생에너지), 목포(조선), 여수(석유화학), 광양(철강) 등 전남의 특화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수소 산업 밸류체인을 완성한다. 이를 위해 남부권 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국가 수준의 실증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전남광주 수소기술연구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지역 경제의 판을 바꾸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미 구축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대 위에 AI, 반도체, 데이터 산업을 결합해 전남·광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산업 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 차영수 전남도의원, 강진군수 선거 출마 선언

### “4개 권역 기능별 특화 발전”

차영수 전남도 의원은 지난 7일 강진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강진을 4개 권역으로 구분, 산업·농업·관광·정주 기능을 특화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강진읍에 위치한 사의재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1권역, 성전·도암·신전 ▲제2권역, 작천·병영·옴천 ▲제3권역, 칠량·대구·미량 ▲제4권역, 강진읍·군동 등 강진을 4개 권역으로 구분, 이들 권역 간 연계 계를 통한 ‘머무는 강진, 일하는 강진, 돌아오는 강진’을 실현 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현재 우리에게 전남광주 통합



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고 있어 강진이 이대로 전남의 끝자락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통합시대의 중심으로 올라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중앙정부와 전남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강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강진청년회의소 제27대 회장, (전)한국대학연맹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및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 양부남, ‘고액·악성 채납’ 구조 손본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은 8일 장기간 채납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

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도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구분해 채납 역지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법령 위반에 따

른 채납에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해 고의적 채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양 의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채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채납 역지력을 높여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